

▣ 본문 감상

詩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 현실적 생활의 고통을 시인으로서 견디기 어려움을 토로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한숨도) 잠을 못잔다.

→ (서른 먹은 사내) 시석화자 시인자신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베게맡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보다.〉→ 배경묘사를 통해 곤궁한 삶을 표현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온 생활의 노래〉→ 시인의 고단한 삶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 때문에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 (너) 먹고 사는 현실적 문제

⇒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인의 삶과 그로인한 고뇌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문다.〉→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고민하는 시인의 내적 갈등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내린다.

노신(魯迅)이여→ 시인이 지향하는 이상적 존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 호마로(上海 湖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희망과 의지의 상징

등불이 나에게 속삭어린다.

→ 내가 등불을 보며 속삭인다-주객전도의 발상 혹은 노신(=등불)의 말이 떠오른다고 해석 가능

⇒ 시인의 삶에 대한 회의적 상황 속에서

노신의 작가 정신을 떠올림

〈여기 하나의 상심(傷心)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일상인으로서의 삶과 시인으로서의 소명 의식이 대치되나 결국 소명 의식을 심화시킴

⇒ 노신의 작가 정신을 떠올리며 삶의 의지와

시인의 자세를 가다듬음

▣ 핵심 정리

■ 주제: 궁핍한 생활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시인의 삶을 추구하고자함

■ 특징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사색적인 어조로 진술

배경의 상징적 의미가 주제 의식 표출과 밀접한 관련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심정을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제시

시인의 일반적 경향(회화성)과는 달리 내용 위주의 서술이

감동을 주고 있다.

■ 갈등 구조

가족의 생계마저 책임질 수 없는 현실적인 삶

↔ 작가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인으로서의 삶

▣ 이해 감상

궁핍한 시대의 시인으로 살 수밖에 없으면서도 곳곳하게 살아가려 했던 시인 김광균의 자전적 생애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화자는 밤늦은 시간인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와 작가정신을 지키며 살아야하는 시인으로서의 삶 사이의 내적 갈등 때문이다. 등불 켜고 앉아 고뇌하던 화자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작가정신을 잃지 않았던 노신을 떠올리며 현실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참다운 시인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한다.

▣ 본문 감상

무정(無情)히 서 있는 바위 유정(有情)하여 보이나다.

최령(最靈)한 오인(吾人)도 직립불의(直立不倚) 어렵거늘
만고에 곧게 선 얼굴이 고칠 적이 없나다.

무정하게 서 있는 바위 유정하여(정이 있어) 보이는구나
가장 영특한 우리도 의지하지 않고 곳곳이 서 있기 어렵거늘
오랜 세월 곧게 선 모습 변할 적이 없구나.

■ 시어·시구 풀이

- * 무정(無情)히 :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 * 서□ 바회 : 서 있는 바위가
- * 유정(有情)하야 : 어떠한 뜻이 있는 듯
- * 최령(最靈)흔 : 최고로 영특한
- * 오인(吾人) : 우리 인간들
- * 직립불의(直立不倚) : 의지하지 않고 우뚝 섬
- * 곧게 선 : 똑바로 곧게 선
- * 고칠 적이 : 고칠 때가. 변할 때가

■ 주제: 항상 곧게 서 있는 바위를 예찬함

강두(江頭)에 흘립(屹立)하니 양지(仰之)에 더욱 높다
풍상(風霜)에 불변하니 찬지(鑽之)에 더욱 굳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하노라.

강가에 높이 솟으니 이를 우러러 볼수록(쳐다볼수록) 더욱 높다.
바람 서리에 변하지 않으니 이를 뚫음에 더욱 굳다(뚫어 볼수록 더욱 굳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하노라.

■ 시어·시구 풀이

- * 강두(江頭) : 강가에
- * 흘립(屹立) 하니 : 우뚝 서 있으니
- * 양지(仰止)예 : 그것을 우러러보매
- * 굿다 : 굳다. 굳세다
- * ③하며 : 같으면

■ 주제: 시련에도 변치 않는 바위를 예찬함

탁연직립(卓然直立)하니 본받을 만하다마는
구름 깊은 협중(峽中)에 알 이 있어 찾아오랴
노력제반(努力?攀)하면 기관(奇觀)이야 많으니라.

빠어나게 뛰어나 곳곳히 바로 서니 본받을 만하다마는
구름 깊은 골짜기에 알 사람이 있어 찾아오겠는가
무엇을 붙잡으며 애를 써서 높은 곳에 오르면 기이한 볼거리 많으니라.

■ 시어·시구 풀이

- * 탁연직립(卓然直立) : 곳곳하게 우뚝 섬
- * 법(法) 바담 : 본받을 만함
- * 협중(峽中) : 골짜기 속
- * 알리 잇사 : 아는 사람이 있어서
- * 차자오랴 : 찾아오겠는가?
- * 노력제반(努力躋攀) 하면 : 힘들여서 산을 오르면
- * 기관(奇觀) : 기이한 경관
- * 만하니라 : 많으니라.

■ 주제: 입암의 기이한 경관이 많으나 오지 않는 사람을 안타까워 함.

□ 핵심정리

- 연대 : 조선 중기
- 갈래 : 평시조, 연시조(전 3수), 정형시
- 성격 : 영물가
- 제재 : 바위
- 주제 : 입암(立巖)의 절경 예찬
- 출전 : 〈노계집〉

■ 이해와 감상

입암이라는 곳에서 지은 22편의 시조인데, 다시 7편이 발견되어 모두 29편이다. 이는 노계시조의 3분의 1이 넘는 편수이며, 저작 연대는 1629년(인조 7)과 1637(인조 15)년 두 가지 주장이 있다.

노계가 당시의 학자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을 찾아 교유하며 지은 작품들로, 입암 28경(立巖二十八景)을 중심으로 한 물외한인(物外閑人)의 심정과 그로부터 연상되는 중국의 고사(故事)를 엮어 고도로 시화(詩化)하였다. 작자의 문집인 《노계집(蘆溪集)》에 22수가 실렸고, 경상북도 포항시 죽장면(竹長面) 매현리(梅峴里) 노계 종손가 고사본(古寫本)에 7수가 전한다. -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인용함

■ 이해와 감상

우뚝 솟아 있는 바위가 지닌 긍정적 속성에 주목하여 인간에게 주는 교훈을 찾고 있는 작품이다. 제1수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항상 변함 없이 서 있는 바위의 굳음을, 제2수는 홀로 우뚝 솟아 있는 바위의 높은 기상과 풍상에도 불변하는 바위의 굳은 절개를 찬양하고 있으며, 제3수는 노력하면 입암의 기이한 경관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사람들의 우매함을 지적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일제 말기의 대표적인 문예지인 「문장」지는 당대의 문화적 위기 상황에서 한 지향점으로 고전 정신을 내세웠다. 이 고전 정신은 구체적으로는 선조들의 정신이나 민족혼과 관계되는 사물들에 대한 애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고완품(古翫品)에 대한 완상, 사군자 예찬론 등은 이러한 의식의 표출이다. 이 작품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이런 대상들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그 자체로서만 표출된다는 점이다. 즉 그러한 완상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확대시켜 제시하지 않고 대상에 대한 몰두로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필자로 대표되는 고전 정신의 문학적 발현 양상의 뚜렷한 특징이기도 하다.

■ 이해와 감상

어려서 고아가 되어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던 고독한 태준은 고완과 낚시질이 취미였다. 그 취미들은 늘 크나큰 위로가 되어 주었다. 연적, 천도형 분원사기 하나가 태준에게 주는 기쁨은 대단한 것이었던 모양이다. 특히나 그 연적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었으니 밤 깊으면 저와 나와 한가지로 '싫증을 모르고 마주보던' 물건이었다.

손은 익었으나 마음은 아이처럼 천진했던 조선 도공들이 무심하게 빚어놓은 그릇 한점을 그는 인공이라기보다 자연으로 본다. 고완품은 그저 소장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미술품으로, 공예품으로 정당한 현대적 해석을 발견해 고물이 먼지를 털고 새로운 미와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고완이란 글은 그런 측면에서 쓰여졌다.

■ 핵심 정리

- 제재 : 고완
- 주제 : 골동품을 사랑하는 마음

※ 작가 미상, 〈금령전〉

• 해제 : 이 작품은 여주인공 금령이 금방울 모양으로 태어나서 별이는 신기담을 흥미 있게 전개해 놓은 전기 소설이며, 주인공의 삶이 '영웅의 일생'이라는 영웅 서사 구조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영웅 소설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권선징악, 고진감래(苦盡甘來)의 내용으로 요괴를 퇴치하며, 주인공이 변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설화적 성격을 지닌 소설이기도 하다. 이 작품의 가치관은 해룡과 금령의 '남녀 결합'과 '부귀 획득'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금령전〉을 쓴 작가의 가치관인 동시에 독자층의 행복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주인공의 적극적인 활동과 남녀 주인공의 행복한 결합은 권력에서 소외된 피지배계층에 속하는 독자층 특히 여성의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제 : 금령과 해룡의 고난 극복과 부귀 획득 및 결혼

• 구성

장원 부인을 낳게 해 준 금령 - 족자를 가져다주는 금령 - 금령이 사라짐 - 장삼의 집에 살게 된 해룡 - 해룡의 뛰어난 능력과 변씨의 모해 - 장삼의 죽음 - 해룡을 학대하는 변씨

춥고 쓸쓸함이 몽당뱃자루 같은 날
 운암담 소릿길에 서서
 날개소리 가득히 내리는 **청동오리떼** 본다
 혼자 보기는 아슴찬히 미안하여
 그리운 그리운 이 그리며 본다
 우리가 **출다고 버리고 씩은** 세상에
 냉혹한 세상, 이해타산적인, 인정 없는 세상
 내가 침 뱉고 오줌 내갈긴
 그것도 **살얼음** 깔려드는 수면 위에
 머언 먼 **순은의 눈나라**에서나 배웠음직한 **몸짓이랑**
 순수한 세상
 카랑카랑 **별빛** 속에서 익혔음직한 **목소리들**을 풀어놓는
 순수함, 속된 욕심에 찌든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별, 별, 새, 새, 들, 을, 본다
 별과 동일시 되는 새에 대한 강조 (순수함)
 물속에 살며 물에 젖지 않는
 얼음과 더불어 살며 얼지 않는 저 **어린 날개들이**
 ▶ 세속에 찌들지 않는
 건너왔을 **바다와 눈보라**를 생각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 겪는 고난
 비상을 위해 뼈 속까지 비워둔 **고행과**
한 점 기름기마저 깃털로 바꾼 새들의 **가난**을 생각하는데
 세속적인 욕심
물가의 진창에도 푹푹 빠지는
 물질적 욕망에 대한 집착
 아, 나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물질적 욕망
 내 관절통은 또 얼마나 호사스러운 것이냐

그리운 이여,

순수한 대상

네 가슴에 못 박혀 삭고 싶은 속된 내 그리움은 또 얼마나 얇은 것이냐

한 무리의 새떼는 또

초승달에 결승문자 몇 개 그리며 가뭏없는

더 먼 길 떠난다 이 밤사

나는 옷을 더 벗어야겠구나

물질적 욕망

저 운암의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아버린 죄로

이 밤으로 돌아가

더 추워야겠다 나는

한껏 가난해져야겠다

➔ 물질적 욕망을 지향했던 삶에 대한 반성,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

- 복효근, 「새에 대한 반성문」

※ 주제 찾는 방법 : 제목(반성문) 대립된 시어의 의미 (긍정: 새- 순수함, 가난, 가벼움↔부정: 화자-세속적인 욕망, 기름기-옷, 무거움)

주제 : 새를 보고 느낀 기름기가 있는 삶에 대한 반성 (물질적 욕망에 집착하는 삶에 대한 반성)

⇒ 작품 해석의 포인트

: 새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시 해석의 핵심이다. 새의 속성은 순수(순은), 가난, 기름기가 없는 가벼움이다. 기름기를 물질적 욕망으로 해석을 해서 주제를 이끌어 내야 한다. 화자는 이러한 속성을 가진 새를 보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의 주제는 ‘물질적 욕망에 대한 반성’이다. 현대에 살아가는 이들은 대부분 물질적 욕망에 얽매어 있기 때문에 추운 삶을 산다. 하늘과 지상을 대립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때, 지상은 세속적 가치를 나타낸다. 반대로 하늘은 세속을 초월한 이상적 가치를 나타낸다. (그래서 별이 높은 이상을 뜻하는 것이다.) 지상에 얽매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세속적 욕망이 무겁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높은 이상에 다가가기 힘들다. (세속적 재산들은 모두 무게가 나가는 것들이다. 금, 돈, 자동차 등)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화자는 날아가는 새들을 보며 세속을 초월한, 순수한 삶에 대해 현재의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제23회 동인문학상 수상 작품으로 《문학과 사회》 1992년 여름호에 발표되었다.

《회색 눈사람》은 가난과 외로움에 처한 혈혈단신의 한 여대생이 1970년대 한 지하조직에 자발적으로 연루되어 겪은 내면의 풍경을 그린 소설이다. 소설 후반부에서 그녀는 대학을 아주 포기하고 이모에게 내려가 이모의 농사를 오랫동안 돌보는 것으로 나온다. 그녀는 자기가 맞본 희망의 색깔을 주변과 나누려고 여러 가지 일을 벌이기도 하면서 조용한 삶을 산다.

이 소설은 사랑과 희망, 좌절과 배신을 담고 있으면서도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는 단 한마디도 그런 감정의 격렬함이 묘사되지 않는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또한 조직의 의도적인 차단 때문에 단 한번도 중심에 접근하지 못한다. 그런 그녀가 그곳으로부터 아무도 모르는 희망을 발견하고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나가는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 내면에 자리잡고 있으나 언제나 훑대받는 이름없는 무명의 전사들과 이념의 빛들, 그것을 드러내게 한 작가 최윤의 역량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 이해와 감상

최윤의 <회색 눈사람>(1992)은 1990년대 문학의 한 부류로 분류되었던 이른바 ‘후일담(後日譚)’ 소설로서 동인문학상 수상 작품이다. 서술자는 20년 전의 대학 시절을 회상하며 가난 때문에 고향하며 허덕이던 자신의 삶과 주변의 인물들(자신에게 잘해주었던 ‘안’, 장.김 등과 함께 만들던 책, 김희진이라는 한 여인 등)의 삶을 그리고 있다. ‘나’가 과거를 회상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뉴욕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어느 한 여인에 관한 신문 보도 기사 때문이다. (그 여인은 서술자 ‘나(강하원)’의 여권을 위조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김희진이었던 것이다.) 서술자에게 과거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였다. 안을 비롯해서 인쇄소에서 일을 하던 그들[지하에서 운동을 벌이며 몰래 활동을 해온 이들과 가까운 곳에서 일도 하며 지냈던 ‘나’였지만, 결코 그들과 자신을 묶어 ‘우리’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없었을 만큼 그들을 잘 알지 못한 채 그들 곁을 서성였던 것이다. 이런 요인 때문에 ‘나’는 그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었다. 그들 무리에 쉽게 스며들 수 없었던 방외인(아웃사이더)의 아픔이었던 것이다. 시대 현실이 불안한 시기에서 내면에서 중심을 찾고자 한다. 절제된 시어와 독백 같은 어투의 서술을 따라 서술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 이야기는 저 먼 상상속의 허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볼 수 있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임을 알게 된다.

▣ 핵심 정리

- 성격 : 회고적, 사변적, 고백적, 체험적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중간중간에 관찰자 시점도 보임)
- 구성 : 회고식 구성

[현재] ‘나’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지닌 한 연인이 뉴욕에서 사망한 기사를 우연히 발견하고 놀람.

[과거]

- ‘나’는 대학 시절 교재를 헌책방에 내다 팔아 어려운 생계를 유지함.
- ‘나’는 헌책방 주인의 소개로 인쇄소를 경영하는 ‘안’이라는 남자를 만나 그곳에서 번역일과 논문 재구성에 관한 일에 몰입함.
- ‘안’이 그의 동료와 함께 가지던, 알 수 없는 비밀 회합이 발각되고 동료들은 흩어짐 (사실 그들은 몰래 지하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임.)
- ‘김희진’이란 여자를 ‘안’의 제안에 따라 여권을 이용해 미국으로 보냄.

[현재] ‘안’을 비롯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어느 교수의 조교가 되어 그의 집필을 도와 주며 살아감.

- 주제 : 불안한 시대의 외적 조건 앞에서 찾으려는 내면의 중심

■ 인물

- '나' : 강하원, 41세의 중년 여인. 어머니가 미군 운전병을 따라 미국으로 떠남. 고향 이모와 함께 살다가 서울로 가출함. 이모의 돈을 훔쳐 감(대학교 학비 마련, 이모부의 병원비를 위해 판 땅값의 전액). 대학 교재를 헌책방에 팔아 다음 학기 교재를 사야 하는 가난한 고학생. 학비를 위해 과외를 함. 금서(禁書)의 책을 헌책방에서 사 모으고 탐독하는 대학시절 당시의 취미였으며, 학비를 위해 다시 팔아치워야 하는 저축 같은 것이기도 했음. 헌책방 주인의 주선으로 알렉세이 아스타체프의 {폭력적 시학: 무명 아나키스트의 전기} 라는 책을 찾는다는 '안'을 만나고, 그의 배려로 그의 인쇄소에서 일하게 됨. 고학과 외로움 속에서 죽음을 생각할 때 '안'을 떠올리게 됨. 막연하게 '안'에게 관심을 갖고 비밀회합을 갖는 '안'의 모임에 대해 동경을 가짐. 지하운동단체인 문학혁명회(반정부모임)에 가담.(3개월 후 사라짐) 확신 있는 사회주의자도 아니었으며, 그 계통의 책은 사 모으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이론적으로 무장해 있지도 않았고 고용인의 성실성으로 교정 및 인쇄물 배부(시위현장의 전단 등) 등의 일을 맡음. 그러나 그 모임의 참석자인 '안, 김, 정(주사)' 등은 '나'와 일정한 거리를 둠. '안'의 부탁으로 병든 김희진을 도와주고, 자신의 여권을 위조하여 김희진이 미국으로 떠나도록 함. 검열과 감시를 피해 가며 '그들'과 자발적으로, 혹은 그들에 의해 차단된 선에서만 모임에 가담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운동 속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후에 그 희망의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믿음을 다른 이에게도 알려주고자 함.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감. 대학교수의 조교 노릇을 함. 우울하고 슬픈 삶을 살고 있지만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내면 지님.

- '어머니' : 나를 이모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미군 운전병을 따라가 버린 후 소식이 없다가 '나'에게 초청장과 짝막한 편지를 보냄. 내가 고향을 떠날 때 가지고 나온 것은 이 편지와 이모 몰래 준비한 대학의 입학금을 위해 훔친 돈이었음. 미국에서 봉제일을 하고 있음

- '안' : 당시 27세, 음대 다니다가 제적됨. 그는 명함이나 카드 등속을 만들어 내는 작은 인쇄소를 차리고 있고 음악 감상이 취미이며 가령 에릭 사티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다고 말함. 자신의 뒤를 캐는 '나'를 문책하다가 웃으며 함께 일하자고 제안함. 오 년 이상 지하 운동으로 결성, 활동해 온 문화혁명회의 리더격임. 모임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나'의 안전을 위해 손을 떨 것을 권유함. 김희진을 도와달라는 편지를 나에게 쓰고 내가, 어머니의 초청으로 만들게 된 '나'의 여권을 이용해 김희진이 국외로 도피하도록 부탁함. 후에 그는 유명한 민중 예술가이자 운동가가 됨. 20년 전 인쇄소에서 활동할 때 김희진이 썼던 논문이나 글들이 간혹 그의 글에서 발견됨.

- '김희진' : 지하운동에서 활발하게 활동으로 여성으로 인쇄소 모임에서 '나'가 이름만 들어 알게 됨. 그들의 모든 계획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음. 후에 '안'의 주선으로 나의 자취방으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며, '안'의 편지를 '나'에게 줌. 짧은 시간이나마 '나'와 따뜻한 동지애를 갖게 됨. 후에 '나'의 여권을 위조하여 미국으로 도피, 불법체류자가 됨. 그 후 20년이 지나고 '나'는 신문에서 '강하원'이라는 여권을 지닌 여자가 아사(餓死)했다는 기사를 읽게 됨.]

- '정' : 26세. 문학혁명회 일원. 동회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주사라고 불림. '안'과 동향(同鄉)임. 동회를 곧 그만둠. 후에 강하원의 여권을 위조하여 김희진의 출국을 도와줌. 정은 안이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김희진의 미국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분개함. 또한 그가 '나'를 끌어들이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샀던 책 속에 끼워져 있던 '나'의 어머니의 초청장 때문이었다고 밝힘. (즉,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 김희진의 국외 도피를 위해 나를 그들에게 가담시켰던 것 : 작품 속에서는 자세하게 형상화되어 있지 않음)

- '김' : 30세. 문학혁명회 일원. 연극평을 함. 결혼해 아이가 둘임.

★“회색 눈사람”의 상징성

- 시대의 암울함 상징
 - ‘우리’라는 동류의식을 갖기에는 조금 모자란 듯한 나와 그들과의 지난날 속에서 발견되는 나의 태도(회색분자,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에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또한 굳이 그러고 싶지도 않았던 나의 어중간한 태도를 의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 회색 눈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힘들고 슬프며 암울했던 20년 전에 ‘나’가 그들과 함께 하며 느꼈던 한 가닥의 희망에 대한 믿음임. 눈사람이 비록 이내 녹아버릴 지라도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불가능한 이상에 대해 어렵פות하게 믿음과 희망을 가졌던 ‘나’의 내면 세계의 희망을 상징함.

▣ 줄거리

주인공 나는 전직 교수의 저술을 위한 자료를 찾다가 사회면을 보고 깜짝 놀란다. 내 이름의 여권을 가진 여인이 아사(餓死)로 죽었다는 것이다. 20여 년 전 나는 이모의 돈을 훔쳐 대학에 등록을 하고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학기가 지난 책을 팔아서 연명하고 있었다. 청계천의 헌책방에서 내 책을 산다는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된 안은 나의 딱한 사정을 알고 그가 경영하는 인쇄소에서 일하도록 해준다. 한 학기를 휴학하고 인쇄소에서 종일 일하면서도 나는 안의 정체를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그리움으로 인쇄소를 찾던 어느 날 밤, 나는 안이 지하운동의 멤버임을 알게 된다. 내가 자신의 뒤를 쫓는 것을 알게 된 안은 인쇄소 일 대신에 지하조직의 일을 맡게 한다.

나는 지하조직에서 세 명의 사람과 일을 하지만 내게 맡겨진 일 이외는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고 그들 또한 알려주지 않은 채 성실히 일만 한다. 그런 한편으로는 미국으로 재가한 어머니가 마련해 준 초청장으로 여권을 신청해 놓는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직이 발각되고 나는 초조와 불안과 그리움으로 그들 중의 하나를 기다린다. 드디어 안은 김희진이라는 여자와 내 여권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보낸다. 나는 그녀를 20일 동안 간호하여 미국으로 보낸다. 그뒤 고맙다는 단 한마디의 엽서를 받는다.